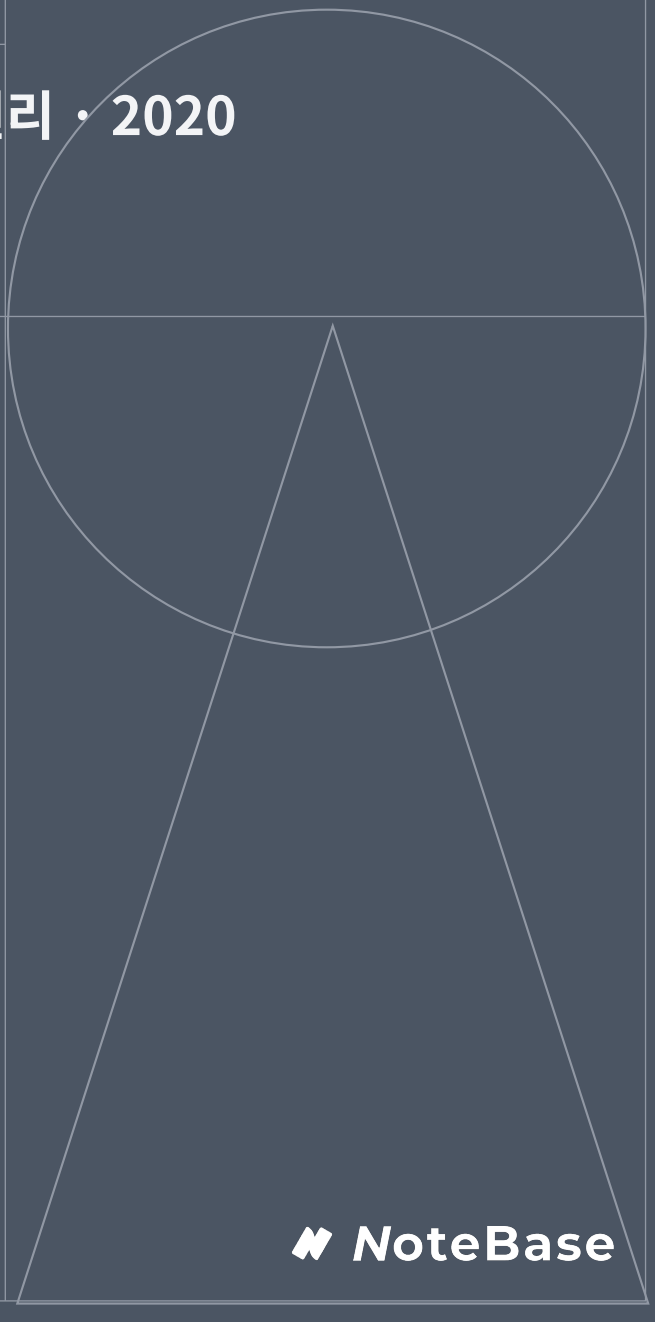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0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0

문 1. (주)한국의 20×1년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중에 ₩500,000을 유상증자 하였으며, ₩100,000을 현금배당 하였을 경우, 기말부채는? (단, 다른 자본항목의 변동은 없다)

	기초	기말
총자산	₩5,000,000	₩6,500,000
총부채	₩2,000,000	?
총수익		₩1,000,000
총비용		₩800,000

① ₩2,700,000
② ₩2,900,000
③ ₩3,600,000
④ ₩4,3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과 유상증자를 더하고 현금배당을 빼서** 구한다. 기말자본 360만원을 기말자산 650만원에서 차감하면 기말부채는 290만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초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이다. 표의 금액을 만원 단위로 환산하면 기초 총자산은 500만원, 기초 총부채는 200만원이므로 기초자본은 500 − 200 = 3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 20×1년 총수익 100만원에서 총비용 80만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100 − 80 = 20만원이다. 이 이익은 당기의 경영성과로 자본을 증가시킨다.

기말자본: **유상증자는 자본을 증가시키고 현금배당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유상증자 50만원과 현금배당 10만원을 반영하고 다른 자본항목의 변동이 없으므로, 기말자본은 300 + 20 + 50 − 10 = 360만원이다. 유상증자는 수익이 아니고 현금배당은 비용이 아니므로 당기순이익과 별도로 반영한다.

기말부채: 기말자산은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의 합이므로, 기말 총자산 650만원에서 기말자본 360만원을 차감한다. 기말부채는 650 − 360 = 290만원, 즉 2,900,000원으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자는?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

② 주주 및 채권자

③ 공인회계사

④ 금융감독원

정답 1번

①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다.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주주와 채권자는 재무제표의 이용자이며, 그 지위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작성 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고,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해당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③

공인회계사 자격 자체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작성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고,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NoteBase

④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가 아니다. 작성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고,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년 한 해 동안 영업사업부 건물의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를 위해 ₩5,300을 지출하였다. 이 중 ₩3,000은 도색비용이고 ₩2,300은 소모품 교체 비용이다. 또한, 해당 건물의 승강기 설치에 ₩6,400을 지출하였으며 새로운 비품을 ₩9,300에 구입하였다. 위의 거래 중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지출의 총액은?

① ₩11,700

② ₩15,700

③ ₩18,000

④ ₩21,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일상적인 수선·유지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승강기 설치비와 새 비품 구입비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자산으로 기록할 지출의 총액은 6,400 + 9,300 = 15,700원이다.

계산 과정

이 문항은 지출 총액 중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을 제외하고 자산 원가에 포함할 금액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자산의 기능을 추가하는 지출과, 원래의 사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선·유지 지출을 구분한다.

일상적인 수선·유지비: 도색비 3,000원과 소모품 교체비 2,300원은 건물의 일상적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따라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이며, 합계 5,300원은 자산으로 기록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승강기 설치비: 6,400원은 건물에 승강기 기능을 추가하여 앞으로의 사용 효익을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건물의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새 비품 구입비: 9,300원은 여러 기간에 걸쳐 사용할 **비품을 새로 취득한 원가**이므로 자산으로 기록한다. 건물에 대한 지출만이 아니라 새 비품 구입액도 합산해야 한다.

자산으로 기록할 지출의 총액 = 승강기 설치비 + 새 비품 구입비 = 6,400 + 9,300 = 15,700원이다. 이는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 수입인지 ₩50,000
◯ 송금수표 ₩50,000
◯ 선일자수표 ₩50,000
◯ 자기앞수표 ₩100,000
◯ 타인발행수표 ₩100,000
◯ 당좌개설보증금 ₩100,000
◯ 취득 당시 만기 120일인 양도성예금증서 ₩100,000

① ₩400,000
② ₩350,000
③ ₩300,000
④ ₩2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현금으로 분류하는 **송금수표·자기앞수표·타인발행수표**를 합산한 금액은 250,000원이다. 취득 당시 만기가 120일인 양도성예금증서는 현금성자산의 일반적인 만기 기준인 3개월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분류 기준: 현금은 통화와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 등을 말한다.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금액만 합산한다.

수입인지 50,000원: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 등에 사용하는 증서로, 일반적인 지급수단인 통화대용증권이 아니다. 미사용 수입인지는 소모품 등으로 처리하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송금수표 50,000원: 은행을 통해 송금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이므로 현금에 포함한다.

선일자수표 50,000원: 발행일이 장래의 날짜로 기재된 수표로, 회계상 그 날짜까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자기앞수표 100,000원: 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로,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하므로 현금에 포함한다.

타인발행수표 100,000원: 다른 사람이 발행하여 기업이 보유한 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므로 현금에 포함한다.

당좌개설보증금 100,000원: 당좌거래를 개설하면서 은행에 맡긴 보증금으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양도성예금증서 100,000원: 취득 당시 만기가 120일이므로 3개월을 초과한다.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성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증서는 만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외한다.

금액 합산: 현금에 포함되는 세 수표의 금액만 더한다.
50,000 + 100,000 + 100,000 = 250,000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5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주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다.

②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④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서류로 주요 계정과목의 변동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보조적 명세서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석은 재무제표에 단순히 첨부하는 보조적 명세서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이다. 계정과목의 세부내역뿐 아니라 작성기준, 회계정책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도 제공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공시를 요구하지만 재무상태표 등 다른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선지의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는 주석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를 뜻한다.

② O: 주석은 기준서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본문에 금액으로 인식되지 않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은 이용자가 기업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O: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며, 그 방법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서로 관련된 항목의 설명을 묶으면 이용자가 정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쉽다.

④ X: 주요 계정과목의 변동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보조적 명세서라는 설명은 부속명세서에 해당한다. 주석은 **재무제표 자체의 구성요소**로서 작성기준, 회계정책, 본문 항목의 세부정보와 그 밖의 필요한 설명을 제공한다. 계정과목의 변동내역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과 역할이 그러한 보조적 명세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잉여금은 ₩1,000,000이다. 당기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20×1년 말 자본잉여금은? (단, 다음 거래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계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한다)

◯ 2월에 1주당 액면금액이 ₩2,000인 보통주 500주를 1주당 ₩3,000에 발행하였다.
◯ 3월에 주주총회에서 총액 ₩200,000의 배당을 결의하였다.
◯ 4월에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2,500에 취득하였다.
◯ 3월에 결의한 배당금을 4월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4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40주를 9월에 1주당 ₩4,000에 처분하였다.

① ₩1,000,000
② ₩1,110,000
③ ₩1,510,000
④ ₩1,56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식 발행대금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500,000원과 자기주식 처분대금 중 취득원가를 초과한 60,000원이 **자본잉여금에 가산**된다.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잉여금을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기말 자본잉여금은 1,56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2월 보통주 발행: 발행대금 중 액면금액은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므로 자본잉여금 증가액은 500주 × (3,000원 − 2,000원) = 500,000원이다.

3월 배당 결의: 배당금 200,000원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미지급배당금이라는 부채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4월 자기주식 취득: 원가법에서는 취득금액 100주 × 2,500원 = 250,000원을 자기주식으로 기록한다.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며, 취득 시 자본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지 않는다.

4월 배당금 지급: 앞서 결의한 배당금을 지급하면 현금과 미지급배당금이 각각 200,000원 감소한다. 결의 시 이미 이익잉여금 감소를 반영했으므로 지급 시에는 자본잉여금의 변동이 없다.

9월 자기주식 처분: 원가법에서는 **처분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 처분대금을 비교한다. 처분한 40주의 취득원가는 40주 × 2,500원 = 100,000원이고, 처분대금은 40주 × 4,000원 = 160,000원이다. 차액 160,000원 − 100,000원 = 60,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본잉여금에 가산한다.

기말 자본잉여금: 기초 잔액에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을 더하면 1,000,000원 + 500,000원 + 60,000원 = 1,560,000원이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서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② 기업에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댓값'은 변동대가(금액)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③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기업의 성과 등 **대가의 형태 외의 이유로 변동하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④의 '적용하지 않는다'는 '적용한다'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이를 산정할 때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관행상 가격을 할인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거래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

② O: 기댓값은 발생 가능한 여러 대가 금액에 각각의 발생확률을 곱하여 합한 금액이다.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결과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이 방법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받을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항상 기댓값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 O: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과 변동금액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대가에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추가로 받는 계약이라면 기본 대가는 고정금액이고, 성과상여금은 변동금액이다. 고정금액이나 변동금액 중 하나만 포함하는 계약도 가능하다.

④ X: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기업의 성과 등 대가의 형태 외의 이유로 변동하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받을 주식의 주가 변동처럼 대가의 형태 때문에 생기는 변동과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과에 따라 받을 주식 수가 달라진다면 성과에 따른 변동을 제약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이 규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 중 유의적인 금액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에서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 ₩500,000이 있는 상태에서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0,000에 발행하였다. 주식발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총비용은 ₩800,000이 발생하였다. 이 거래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이다)

① 주식발행관련비용 ₩800,000은 비용처리 된다.

② 자본증가액은 ₩9,200,000이다.

③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500,000이다.

④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은 ₩4,500,000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주식 발행으로 받은 10,000,000원에서 직접 발행비용 800,000원을 차감하므로 **자본은 9,200,000원 증가**한다.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계는 자본 내부의 조정이므로 자본총액을 추가로 줄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주식 발행대금은 10,000원 × 1,000주 = 10,000,000원이다. 이 중 액면총액인 5,000원 × 1,000주 = 5,000,000원은 자본금으로, 액면총액을 초과한 5,000,000원은 발행비용 차감 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분한다.

① X: 주식 발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당기손익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 거래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800,000원을 차감하므로, 발행비용 차감 후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00원 − 800,000원 = 4,200,000원이다.

② O: 모든 거래가 현금거래이므로 현금은 발행대금에서 발행비용을 뺀 10,000,000원 − 800,000원 = 9,200,000원만큼 순증가한다. 부채 변동이 없으므로 자본총액도 9,200,000원 증가한다.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0원을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는 것은 **자본 내부 항목 간 조정**이므로 자본증가액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③ X: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새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한다. 발행비용 차감 후 주식발행초과금 4,200,000원이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0원보다 크므로 전액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500,000원이 아니라 0원이다.

④ X: 주식발행초과금에는 **발행비용 차감과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발행비용 차감 후 금액 4,200,000원에서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0원을 상계하므로 잔액은 4,200,000원 − 500,000원 = 3,700,000원이다. 선지의 4,500,000원은 발행비용 800,000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NoteBase

문 9. 20×1년 초 설립한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전시산표는 회계기록상 계정잔액의 오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위의 수정전시산표상의 오류와 다음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한 후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차변 합계는? (단, (주)한국은 저가법 적용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계정과목	차변	대변
현금	₩200	
매출	₩300	
매출채권	₩500	
건물	₩1,000	
미지급금		₩150
재고자산	₩200	
선급보험료		₩50
자본금		₩1,000
소모품	₩30	
선수수익	₩50	
미수수익		₩10
차입금		₩500
매입채무	₩50	
임차비용	₩30	
급여	₩30	
합계	₩2,390	₩1,710

◯ 20×1년 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는 ₩10으로 확인되었다.

◯ 차입금의 차입일은 20×1년 7월 1일, 연 이자율 4%, 만기 1년이며, 이자는 차입원금 상환 시 일시 지급한다.

① ₩1,850

② ₩2,050

③ ₩2,250

④ ₩2,59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차·대변 분류를 바로잡은 시산표의 차변 합계는 2,050원이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사용하므로 재고자산을 직접 줄이지 않고, 평가손실 190원과 이자비용 10원을 차변에 더하면 **2,25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시산표의 차·대변 분류 수정: 계정잔액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금액은 유지하고 **잘못 옮겨 적은 차·대변 위치**를 바로잡는다. 매출 300원과 선수수익 50원은 각각 수익과 부채이므로 차변에서 대변으로, 매입채무 50원도 부채이므로 차변에서 대변으로 옮긴다. 선급보험료 50원과 미수수익 10원은 자산이므로 대변에서 차변으로 옮긴다.

2. 분류 수정 후 합계: 차변에서는 잘못 포함된 300원·50원·50원을 빼고 누락된 50원·10원을 더한다.
차변 합계 = 2,390 − 300 − 50 − 50 + 50 + 10 = 2,050원
대변 합계 = 1,710 + 300 + 50 + 50 − 50 − 10 = 2,050원
양쪽 합계가 일치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결산조정의 영향을 반영한다.

3. 재고자산 저가평가: 재고자산의 원가 200원이 순실현가치 10원보다 크므로 평가손실은 200 − 10 = 190원이다. 차변에 재고자산평가손실 190원, 대변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90원을 기록한다.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므로 시산표의 재고자산 차변잔액 200원은 그대로 두고, 차변에 평가손실 190원을 추가한다. 재고자산의 순장부금액은 200 − 190 = 10원이 된다.

4. 차입금 이자 발생액 반영: 원금 500원에 대한 이자는 만기에 지급하지만, 2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는 당기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연 이자율에 경과기간을 반영하면 이자비용은 $500 \times 4\% \times \frac{6}{12} = 10$원이다. 차변에 이자비용 10원, 대변에 미지급이자 10원을 기록하므로 차변 합계가 10원 증가한다.

5. 수정후시산표 차변 합계: 분류 수정 후 합계에 두 결산조정으로 추가된 비용을 더하면 2,050 + 190 + 10 = 2,250원이다. 이는 ③의 ₩2,250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의 다음 기말조정사항에 대한 수정분개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증가 또는 감소)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당기 7월 1일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연 6% 이자율)에 가입하고 현금 ₩1,000,000을 입금하였으나, 결산일까지 이자 수령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자관련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

② 비품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30,000을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③ 당기 11월 1일에 소모품을 ₩50,000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기말 결산일에 미사용 소모품 ₩20,000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 당기 4월 1일부터 회사 건물을 (주)민국에게 1년간 임대하고, 1개월에 ₩10,000씩 1년분 임대료 ₩120,000을 현금으로 받아 전액 수익으로 기록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자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나머지 조정은 누락된 비용을 인식하거나 미리 기록한 수익을 줄여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수정분개 전과 후를 비교하여, 수익이 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비용이 늘거나 수익이 줄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지 살펴본다. 현금의 수취·지급 여부보다 수익과 비용이 어느 기간에 귀속되는지가 기준이다.

① 미수이자 인식 — 당기순이익 증가: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예금 가입 후 결산일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에 대해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수익을 기록한다. **아직 받지 않은 이자수익을 추가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② 감가상각비 인식 — 당기순이익 감소: 당기에 비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3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30,000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30,000원을 기록하여 **누락된 비용을 인식**한다. 비용이 늘어나므로 당기순이익은 30,000원 감소한다.

③ 소모품 사용액 인식 — 당기순이익 감소: 구입액 50,000원을 자산으로 기록했으므로, 결산일에 남은 미사용분 20,000원만 자산으로 유지하고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기 사용액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다. 차변에 소모품비 30,000원, 대변에 소모품 30,000원을 기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30,000원 감소한다.

④ 미경과 임대료 조정 — 당기순이익 감소: 4월 1일부터 1년간의 임대료 120,000원을 모두 수익으로 기록했지만, 결산일 현재 아직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다음 기간에 귀속된다. 그 금액은 **당기 수익에서 빼고 선수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차변에 임대료수익, 대변에 선수수익을 기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①은 수익을 추가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②·③은 비용 인식, ④는 수익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따라서 영향의 방향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11.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②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당기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④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당기손익의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으로 고쳐야 한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면 보고서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능별 분류는 비용을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수행한 기능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다. 이 분류만으로는 각 기능에 배분된 감가상각비나 급여 등의 총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이 포함된다.

② X: 재분류조정은 당기 또는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에 당기손익으로 옮기면서 하는 조정이다. 같은 금액이 총포괄손익에 중복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기타포괄손익에서도 조정한다. 재분류조정의 내역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 보고서에는 조정을 반영한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표시한다. 따라서 선지의 '당기손익의 항목'을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수익과 비용은 보고서 본문뿐 아니라 **주석에서도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다**. 발생이 드물거나 금액이 크다고 해서 특별손익이라는 별도 범주를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수익·비용의 성격과 금액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특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과 다르다.

④ O: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본 내부의 대체**이다. 재평가잉여금이 줄어든 만큼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므로 이 대체 자체로 자본총액이 변하지 않으며, 당기손익으로도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재분류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도·소매 기업인 (주)한국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정상적 원인에 의한 재고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보고하는 경우 (주)한국이 당기에 인식해야 할 매출원가는? (단, 재고감모손실의 30%는 비정상적 원인, 나머지는 정상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기초상품재고액 ₩100,000
당기상품매입액 ₩900,000
기말상품재고액(장부금액) ₩220,000
기말상품재고액(실사금액) ₩200,000

① ₩766,000

② ₩786,000

③ ₩794,000

④ ₩8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감모손실 20,000원 중 **정상적 감모손실 14,000원만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감모손실 반영 전 매출원가 780,000원에 이를 더한 794,0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감모손실 반영 전 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을 합하면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가 된다. 여기서 **기말재고의 장부금액**을 빼면 감모손실을 반영하기 전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
100,000 + 900,000 − 220,000 = 780,000원

재고감모손실의 구분: 장부상 남아 있어야 할 상품보다 실사로 확인한 상품이 적으므로, 두 금액의 차이 220,000 − 200,000 = 20,000원이 재고감모손실이다. 이 중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20,000 × 30% = 6,000원이고, 정상적 감모손실은 나머지 70%인 20,000 × 70% = 14,000원이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당기 매출원가: 감모손실 반영 전 매출원가에 정상적 감모손실만 더한다.
780,000 + 14,000 = 794,000원
따라서 당기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794,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100,000,000(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에 구입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해당 건물의 공정가치가 ₩80,000,000일 경우 (주)한국이 인식해야 할 평가손실은?

① 기타포괄손실 ₩10,000,000

② 당기손실 ₩10,000,000

③ 기타포괄손실 ₩20,000,000

④ 당기손실 ₩20,0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금액 100,000,000원에서 기말 공정가치 80,000,000원으로 감소했으므로 당기손실은 20,000,000원이다.

계산 과정

적용 모형: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다. 이 건물에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므로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으며, 평가 전 장부금액은 취득금액인 100,000,000원이다.

평가손실 계산: 기말 공정가치가 평가 전 장부금액보다 작으므로 그 차액이 평가손실이다.
평가손실 = 100,000,000원 − 80,000,000원 = 20,000,000원
이는 건물의 장부금액을 80,000,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인식하는 감소액이다.

손실의 인식: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20×1년에 인식할 금액은 당기손실 20,00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손익 구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20×1년에 발생한 기중 거래 및 결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각각 미치는 영향은?

(1) 20×1년 7월 1일 만기 1년의 정기예금에 현금 ₩100,000을 예치하였다. 정기예금의 연 이자율은 4%이며, 만기시점에 이자를 받는다.
(2)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매월 말에 지급했으나, 20×1년 12월 급여 ₩1,000은 20×1년 12월 31일에 지급하지 않고 20×2년 1월 3일에 지급하였다.
(3) 20×1년 11월 1일에 창고를 6개월간 임대하고, 1개월에 ₩1,000씩 6개월 임대료 ₩6,0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① 발생기준: ₩3,000 감소, 현금기준: ₩0
② 발생기준: ₩3,000 증가, 현금기준: ₩0
③ 발생기준: ₩3,000 증가, 현금기준: ₩6,000 증가
④ 발생기준: ₩3,000 감소, 현금기준: ₩6,000 증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발생기준은 **20×1년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므로 이자수익 2,000원과 임대료수익 2,000원에서 급여 1,000원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이 3,000원 증가한다. 현금기준은 **실제로 받은 임대료 6,000원**만 수익에 반영하므로 당기순이익이 6,0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발생기준은 현금 수수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현금기준은 현금을 받거나 지급한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 기준에서 인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구한다.

(1) 정기예금 이자: 2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 이자가 발생한다. 연 이자율 4%를 6개월에 맞게 적용하면 이자수익은 $100{,}000 \times 4\% \times \frac{6}{12} = 2{,}000$원이다. 발생기준에서는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수익과 미수수익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2,000원 증가한다. 현금기준에서는 만기에 이자를 받으므로 20×1년의 이자수익은 0원이다. 예치한 **원금 100,000원은 비용이 아니므로** 두 기준 모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미지급 급여: 12월 급여 1,000원은 **20×1년에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비용**이다. 발생기준에서는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와 미지급비용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원 감소한다. 현금은 20×2년 1월 3일에 지급하므로 현금기준에서 이 급여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원이다.

(3) 창고 임대료: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임대기간이 2개월 경과했으므로 발생기준의 임대료수익은 1,000 × 2 = 2,000원이다. 처음 수익으로 처리한 6,000원 중 **다음 해 4개월분 4,000원은 선수수익**으로 돌리는 결산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발생기준의 당기순이익은 2,000원 증가한다. 현금기준에서는 20×1년에 받은 6,000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6,000원 증가한다.

합계: 발생기준의 당기순이익 영향은 2,000 − 1,000 + 2,000 = 3,000원 증가이고, 현금기준의 영향은 0 − 0 + 6,000 = 6,000원 증가이다.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채를 할증발행할 경우, 인식하게 될 이자비용은 사채할증발행차금에서 현금이자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② 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점차 감소한다.

③ 사채를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할 경우 마지막 기간 상각 완료 후 장부가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이 된다.

④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총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금액은 같고,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총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금액은 다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할인발행차금과 할증발행차금은 사채의 존속기간에 걸쳐 전액 상각된다. 따라서 마지막 기간의 상각을 마치면 남은 발행차금이 없어져 **장부가액이 액면금액과 같아진다**.

선지별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각 기간의 기초 장부가액에 해당 기간의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이자비용과 현금이자 지급액의 차이가 그 기간에 상각할 발행차금이다.

① X: 할증발행 시 이자비용은 **현금이자 지급액에서 해당 기간의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중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를 상각하면 사채의 장부가액이 감소한다. 선지는 차감 순서가 잘못되었고, 총할증발행차금과 해당 기간의 상각액도 구분하지 않았다.

② X: 매기 현금이자 지급액과 유효이자율이 일정할 때, 할인발행차금의 기간별 상각액은 **점차 증가한다**. 할인발행 시에는 이자비용이 현금이자 지급액보다 크며, 그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처리하여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장부가액이 커지면 다음 기간의 이자비용도 증가하므로, 일정한 현금이자 지급액과의 차이인 상각액도 커진다.

③ O: 할인발행한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금액에서 미상각 할인발행차금을 뺀 금액이고, 할증발행한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금액에 미상각 할증발행차금을 더한 금액이다. 마지막 기간까지 상각하면 두 경우 모두 **미상각 발행차금이 0**이 되므로, 원금 상환 직전의 장부가액은 액면금액과 같아진다.

④ X: 만기까지 전액 상각하면 할인발행차금뿐 아니라 **할증발행차금도 총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가 같다**. 할인발행차금은 상각할 때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할증발행차금은 장부가액을 감소시키지만, 최초 발행차금 전액을 기간별로 배분하여 없앤다는 점은 동일하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수정후시산표잔액이다. (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총계는?

계정과목	차변	계정과목	대변
현금	₩20,000	매입채무	₩20,000
매출채권	₩10,000	차입금	₩100,000
재고자산	₩5,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
토지	₩100,000	대손충당금	₩2,000
건물	₩200,000	자본금	?
매출원가	₩10,000	이익잉여금	₩9,000
감가상각비	₩5,000	매출	₩20,000
급여	₩1,000		
합계	₩351,000	합계	₩351,000

① 이익잉여금: ₩ 13,000, 자본총계: ₩ 163,000

② 이익잉여금: ₩ 13,000, 자본총계: ₩ 150,000

③ 이익잉여금: ₩ 10,000, 자본총계: ₩ 150,000

④ 이익잉여금: ₩ 10,000, 자본총계: ₩ 163,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수정후시산표의 이익잉여금 9,000원에는 **당기순이익 4,000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기말 이익잉여금은 13,000원이다. 시산표의 대차 합계로 구한 자본금 150,000원에 이를 더하면 자본총계는 163,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순이익 계산: 수정후시산표는 결산수정 후이지만 **수익·비용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 전**의 잔액을 보여 준다. 매출 20,000원에서 매출원가 10,000원, 감가상각비 5,000원, 급여 1,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20,000 − 10,000 − 5,000 − 1,000 = 4,000원이다.

2. 기말 이익잉여금 계산: 시산표의 이익잉여금 9,000원에 당기순이익 4,000원을 더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익잉여금은 9,000 + 4,000 = 13,000원이다.

3. 자본금 계산: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 자본금을 제외한 대변 잔액은 매입채무 20,000원, 차입금 1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0원, 대손충당금 2,000원, 이익잉여금 9,000원, 매출 20,000원으로, 합계 201,000원이다. 따라서 자본금은 대변 합계 351,000원에서 이를 뺀 351,000 − 201,000 = 150,000원이다.

4. 자본총계 계산: 주어진 자본 항목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므로, 자본총계는 자본금 150,000원과 기말 이익잉여금 13,000원을 합한 163,000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과 대손충당금은 각각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자본에 더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 13,000원과 자본총계 163,000원은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의 당기 매출은 외상 거래만 있었다고 할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한 활동성 비율분석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활동성 비율 계산 시 분모는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금액을 이용하며,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초	₩1,000	현금	₩47,000	기초	₩1,000	매출원가	₩25,000
매출액	₩50,000			매입채무	₩20,000		
				현금	₩8,000		

① 매출채권회전율은 20회이다.

② 재고자산회전율은 12회이다.

③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은 18일이다.

④ 재고자산의 평균판매기간은 36일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평균재고자산이 2,500원이므로 재고자산회전율은 12회가 아니라 **10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로 증가하고 현금 회수로 감소하므로 기말잔액은 1,000 + 50,000 − 47,000 = 4,000원이다. 재고자산은 외상매입과 현금매입으로 증가하고 매출원가만큼 감소하므로 기말잔액은 1,000 + 20,000 + 8,000 − 25,000 = 4,000원이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두 자산의 평균잔액은 각각 $\frac{1,000+4,000}{2} = 2,500$원이다.

① O: 매출채권회전율은 외상매출액을 평균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이다. 당기 매출이 **모두 외상 거래**이므로 외상매출액은 50,000원이고, 회전율은 $\frac{50,000}{2,500} = 20$회이다. 이는 평균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 동안 20회 회수되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② X: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다. 재고자산이 원가로 기록되므로 판매되어 빠져나간 재고도 원가로 대응시켜야 한다. 따라서 회전율은 $\frac{25,000}{2,500} = 10$회이며, 선지의 12회는 10회로 고쳐야 한다.

③ O: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은 외상매출 발생 후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이다. **1년을 360일**로 계산하므로 매출채권회전율 20회로 나누면 $\frac{360}{20} = 18$일이다.

④ O: 재고자산의 평균판매기간은 재고자산이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이다. 1년 360일을 **재고자산회전율 10회**로 나누면 $\frac{360}{10} = 36$일이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의 현재 유동자산은 ₩100, 유동부채는 ₩200이다. 다음 거래가 (주)한국의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30에 취득하면서 취득 대금 중 ₩1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는 유동비율을 감소시킨다.

② 재고자산을 현금 ₩10에 구입한 거래는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단기차입금을 현금 ₩20으로 상환한 거래는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 ₩30을 수령한 거래는 유동비율을 증가시킨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단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지만, 유동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유동비율은 50%에서 약 44.44%로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 단기 채무의 상환 능력을 나타낸다. 현재 유동비율은 $\frac{100}{200} \times 100\% = 50\%$이다. 각 거래를 현재 유동자산 ₩100과 유동부채 ₩200에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비교한다.

① O: 토지는 비유동자산이므로 취득한 토지 ₩30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지급으로 유동자산은 ₩10 감소하여 ₩90이 된다. 나머지 ₩20은 **2년 후 지급할 비유동부채**이므로 유동부채는 ₩200으로 유지된다. 거래 후 유동비율은 $\frac{90}{200} \times 100\% = 45\%$로 감소한다.

② O: 재고자산과 현금은 모두 유동자산이다. 현금이 ₩10 감소하는 동시에 재고자산이 ₩10 증가하므로 **유동자산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유동부채도 변하지 않아 유동비율은 50%로 유지된다.

③ X: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이므로 현금 ₩20으로 상환하면 유동자산은 ₩80, 유동부채는 ₩180이 된다. 거래 후 유동비율은 $\frac{80}{180} \times 100\% \approx 44.44\%$이다. 같은 금액을 차감해도 분자와 분모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동비율을 감소시킨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현금 ₩30을 수령하면 유동자산은 ₩130으로 증가한다. **3년 만기 사채는 비유동부채**이므로 유동부채는 ₩200으로 유지된다. 거래 후 유동비율은 $\frac{130}{200} \times 100\% = 65\%$로 증가한다.

NoteBase

문 1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②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한다.

④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함을 뜻하지 않는다**. 추정치도 적절한 추정 과정을 오류 없이 적용하고 그 성격과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면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현충실성은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특성으로, 완전성·중립성·오류 없음을 추구한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다**. 현상의 설명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산출하는 적절한 과정을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가치를 추정한 경우에도 추정치임을 명확히 밝히고 추정 과정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적절한 과정을 오류 없이 적용했다면 표현충실성을 갖출 수 있다.

② O: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식이 있고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해당 표현이 충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음**을 뜻하며, 모든 관찰자가 완전히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O: 이해가능성은 이용자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특정·표시**하면 내용과 관계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다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복잡한 현상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면 보고 내용이 불완전해질 수 있다.

④ O: 적시성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필요한 결정이 끝난 뒤에야 제공되면 그 결정에 활용하기 어렵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주)민국에 대한 다음의 실사 결과를 이용하여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만약, 이 중 75%를 ₩2,000에 취득하고 영업권 ₩500을 인식한다면 (주)민국의 자산 공정가치는?

◯ 자산의 장부가치: ₩4,000 (공정가치 ?)
◯ 부채의 장부가치: ₩2,500 (공정가치 ₩2,500)
◯ 자본금: ₩500 ◯ 자본잉여금: ₩300 ◯ 이익잉여금: ₩700

① ₩3,500
② ₩4,000
③ ₩4,500
④ ₩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취득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 500원을 인식하는 전제에서, 취득대가 2,000원 중 1,500원이 순자산 75%의 공정가치이다. 전체 순자산 공정가치는 2,000원이며, 부채 공정가치 2,500원을 더한 **자산 공정가치는 4,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계산의 전제: 공식 정답은 비지배지분, 즉 취득하지 않은 25% 지분을 식별가능 순자산의 지분비례액으로 측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이 방식에서는 **취득지분 75%에 귀속되는 영업권만 인식**한다. 원문에는 비지배지분의 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식에서는 그 공정가치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주어진 수치만으로 자산 공정가치를 유일하게 확정할 수 없다.

1. 취득한 순자산 75%의 공정가치: 위 전제에서 영업권은 취득대가가 취득지분에 해당하는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취득대가에서 영업권을 차감하면 취득한 순자산 75%의 공정가치가 나온다.
2,000 − 500 = 1,500원

2. 전체 순자산 공정가치: 1,500원은 전체 순자산의 75%에 해당하므로, **취득지분율로 나누어 100%의 금액**으로 환산한다.
$1{,}500 \div \frac{75}{100} = 2{,}000$원

3. 자산 공정가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전체 순자산 공정가치에 부채 공정가치를 더하면 자산 공정가치가 된다.
2,000 + 2,500 = 4,500원

장부가치와의 구별: 자산 장부가치 4,000원에서 부채 장부가치 2,500원을 차감한 1,500원은 장부상 순자산이다. 이는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합계인 500 + 300 + 700 = 1,500원과 같다. 이 금액은 앞서 계산한 취득지분 75%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숫자만 같으며, **전체 순자산의 장부가치와 취득지분의 공정가치는 서로 다른 금액 개념**이다.

이 전제에서 구한 민국의 자산 공정가치는 4,500원이므로 공식 정답 ③과 일치한다.

NoteBase